

2016 새 설계

김 한 광주은행장

“수도권 영업 확대…수익 창출 지역에 환원”

서울·경기 전략점포 개설 늘려

중금리 상품 개발…공격적 마케팅

전북은행과 서비스 통합 시너지 극대화

“광주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 상공인, 서민들에게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핀테크 및 인터넷은행 등 금융권의 격변 상황에 대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김한 광주은행장은 지난 8일 광주일보와의 신년인사 인터뷰에서 “1~2년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광주·전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은행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한계상황에 이른 지역영업에서 벗어나 수도권 점포 확장 등 새로운 수익창출을 통해 이를 지역에 환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 악화와 인터넷 은행 등 금융권의 격변기에 광주은행인·직원은 제2의 창업의 각오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전략점포 개설을 통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지역에는 많은 지역출신 상공인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며 “광주은행 전략점포를 수도권에 배치해 이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이어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늘리고 영업망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공략에 나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개점한 상계동 지점과 길동지점을 포함해 11일 현재 수도권의 점포는 총 22개다. 2014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영업점은 4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월 삼성동지점 개점 이후 광주은행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그 영업망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점포는 지점장을 포함해 4명의 소점포 체제로 운영하고, 2층 이상에 기반을 두는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망 확충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김 행장은 “광주은행은 단순히 수도권 영업점을 늘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권 업무추진부를 신설해 수도권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과 기획으로 수도권 영업점들의 여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광주은행은 수도권에서 영업력 확대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영업자산은 5조 8000억원을 넘어서 전년대비 2조 2000억여 원이 증가했다. 또한 광주은행 노후지점의 경우 개점 6개월 만에 누적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으며 삼성

동, 잠실, 대치동, 방배, 청담, 부평, 청량리 등 8개 지점도 월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영업은 순항 중이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 2금융권의 20~30%에 육박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고객들을 위해 7~9% 안팎의 중금리를 제공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김한 행장은 “중금리 대출 시장은 향후 인터넷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다”며 “이에 대비해 스마트퀵론, 주부퀵론 등 중금리 상품으로 서민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 행장은 다가오는 핀테크 시대에 대비한 전산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프로젝트에 착수해 오는 11월 시스템 오픈을 예상하고 있다. 광주은행 차세대시스템은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북은행 차세대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해 상당부분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두 은행 간 시너지를 이끌어 낸 성과다.

김 행장은 이처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간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그룹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4일 첫 영업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간의 협약을 통해 양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금융망을 구축했다”며 “금융망 공동이용을 통해 호남지역과 수도권 어디에서도 두 은행 고객이 차별 없이 은행 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으로 광주은행을 성원해 주시는 지역민들께 감사 드리며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지역민이 주인인 광주은행은 지역 한인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불어넣는 ‘더 좋은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 광산구 마을 발전기금 1천만원

새마을회와 업무 협약식

나눔 경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광주 광산구새마을회(회장 이영만)에 1000만원 후원 및 업무 협약을 가졌다.

보해양조는 지난 8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 송석주팀장, 광산구새마을회 이영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기금으로 1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보해양조에서 지역사회에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 및 마을 공동체 사업 발전 등의 활동에 적극 활동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새마을회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의 정을 실천하며, 지역민이 보해양조에 보내주시는 사랑에 더욱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中企 중남미 판로 개척 돕습니다”

중기진흥공단,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본부(본부장 이태연)는 광주시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광주광역시 중남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시장개척단의 참가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인 광주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이며, 3월13일부터 3월24일까지 중남미 3개 지역(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라과이 아순시온, 브라질 상파울로)에 파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프라인(off-line)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kimmsy3@sbcc.or.kr)로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 문의는 중진공 광주지역본부(062-369-3051) 또는 광주시 기업육성과(062-613-3881)로 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산 IT제품 中시장 점유율 사상 첫 20%

한국산 정보기술(IT)제품이 중국 수입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점유율 20%를 돌파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10일 내놓은 ‘중국의 13·5 계획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국 내 IT제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한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20.3%를 기록했다.

한국산 IT 제품의 점유율은 2011년에는 17.6%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 IT제품의 중국 수출액은 2011년 821억달러에서 2014년 1037억달러로 증가해 이 기간 연평균 8.1%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대만을 제치고 중국

내 IT제품 수입시장에서 1위에 올라섰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684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1	11	15	17	25	39	40	
등 위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88,815,709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0,858,445					62
3	5개 숫자일치	1,287,208					1,968
4	4개 숫자일치	50,000					98,607
5	3개 숫자일치	5,000					1,623,161

대기업 계열사 3곳중 1곳 이자도 못갚아

부실징후 기업 해마다 증가…대기업 구조조정 시급

우리나라 상위 20대 그룹 계열사 중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업체가 전체 3분의 1을 넘었으며 그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세계경기 악화로 수출 지향적인 대기업의 상황이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 하준 산업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 ‘기업 부실화 실태와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대기업집단 내부에 심각한 기업부실화 문제가 존재하며 저성과 계열사들을 상시적으로 재편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상위 20곳(공기업 제외)을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부실징후기업의 비율이 2014년 37.0%로 지난 2010년 25.6%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하준 연구위원은 이같은 불황형 흑자에 우려를 드러냈다. 매출 부진이 지속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감소하고 이자보상비율이 악화하면서 부채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의 구조조정 이슈가 중소기업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데 이들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으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하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은 2013년 0.6%에 이어 2014년에는 -1.6%를 기록해 중소기업보다 악화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며 “기업의 부실화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전체 산업 차원의 수익성 하락 및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 혼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 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학원(음악)원장, 교사 29~53세
공무원, 교사 27~63세
간호사, 회사원 32~58세
자영업, 교사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한나문방 810호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